

“요소수 부족사태 재현 없다”...전남도, 선제 대응

긴급 상황점검·대책 회의서 수급상황 공유·대응 방안 논의 물가종합상황실 기능 요소수까지 확대...불공정거래 점검

전남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8일 오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차량용 요소수 공급 상황과 전남지역 업계 수급 상황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

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최대 2개월분의 요소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1000리터·1개월)·소방(2만 7000리터·8개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는 당장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장기화 시 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등의 물류와 산업현장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신속한 요소수 공급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물가종합상황실 기능을 요소수 대응 상황실로 확대·전환키로 했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전남도의 요소수 수급과 판매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며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으로 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해남 21도’ 광주·전남 곳곳 12월 역대기온 경신

9일 광주·전남 지역이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곳곳에서 12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여러 지역이 12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12월 낮 최고기온 경신 지역은 해남 21도 순천 20.5도, 장흥·광양 20.4도, 진도 20.3도, 광주 20.2도, 흑산도 19도 순이다. 특히 강진과 보성은 이를 연속 12월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강진과 보성은 전남 역대 최고기온인 19.2도, 20.2도를 넘어 이날 각 20.2도, 19.2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남서풍 유입으로 인해 평년보다(최고기온 8~10도)기온이 약 10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평년과 비교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김수권기자



연말연시 음주 단속 나선 경찰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 정비 안하면 집주인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촌지역에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 6024호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평균 5만호 안팎으로,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 두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 범위에서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변용일기자

기동취재본부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

수능 수학 1등급, 자연계열 ‘썩쓸이’...교차지원 가능성 ↑

202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수능 과목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1등급을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4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 1등급 학생 중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자연계열이 96.5%에 달한 반면, 확률과통계를 택한 인문계열은 3.5%에 그쳤다.

문·이과 통합수능 1년차인 2022학년도(86%)와 2년차였던 2023학년도(81.4%)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대폭 상승한 결과다.

이는 표준점수 최고점차가 2022학년도 3점, 2023학년도 3점, 2024학년도 11점차까지 벌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수학 1~3등급 등 상위권에는 전 구간에 걸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연계열 학생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에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기동취재본부